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4월 7일(주일) 제1486호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
5월 13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이 5월 13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구글폼(하단 QR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한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은 부모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축복의 장(場)이다. 교회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2030 세대 자녀들이 그 대상이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유튜버 박위, 가수 범키, 가수 f(x)루나, 가스펠 보컬밴드 CRUX, DJ PLASTIC KID 등이 게

스트로 출연한다. 특별한 순서들도 준비되어 있다. 식사와 나눔시간에 자녀와 부모가 테이블에 함께 앉아 만찬을 나눈다. 애프터 프로그래밍으로 ‘인생네켓 데이트’도 한다. 테이블 리더(대학청년부 리더)와 팀원이 함께 인생네켓 사진을 찍고, 예배로 초대하는 이벤트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 요청자들을 위한 기도모임도 열린다. 4월 22일(월)과 29일(월)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기도모임에서는 김영애 권사가 ‘2030 자녀에게 부모님이 들려줄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요청자들은 두 번 열리는 기도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행복한 가정 레이스!

4월 27일~5월 26일 ‘2024 달려라풍당’

2024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캠페인이 시작된다. 4월 27일(토)부터 5월 26(주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4월 13일(토)부터 5월 25일(토)까지 CGN 홈페이지(cgntv.net)에 안내되는 구글폼으로 하면 된다.

참가 방법은 걷기, 자전거, 러닝, 등산, 캠핑 등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 내용과 후원 목표액을 정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운동 목표를 달성한 후 CGN에 후원하면 된다. 후원금 전액은 가정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 OTT ‘풍당’ 콘텐츠 제작과 허입에 사용된다. 2024 ‘달려라풍당’의 슬로건은 ‘행복한 가정 레이스’다. 부모와 자녀,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세대 통합의 장(場)을 열고, 두란노아버지학교와 함께 가정 친화적인 캠페인으로 확산시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만든다.

2024 ‘달려라풍당’ 스페셜데이 행사도 열린다. 4월 27일(토)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스페셜데이 라이딩이 진행된다. 동부이촌동과 양재천 주변에 라이딩 코스를 마련했다. 도보, 자전거 등 각자의 방식으로 주행한다. 정해진 코스를 돌며 거점마다 스탬프를 찍고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5월 4~5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4년 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 다시 시작된다. 오는 5월 4일(토)과 5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주차장은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어린이 3명 이상 카풀 차량 등에게 발급되는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

는 절대 안 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셔틀 시간 추후 공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온누리교회가 실시하는 환경캠페인의 일환이다. 매년 분기별로 시행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잠시 멈추었다.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환경캠페인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등이다.

문의: 02-3215-3434

인생

20-30대 자녀와 데이트
맞춤도집회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해주세요.

네켓

Concert

2024. 5. 13 (월) 오후 6시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출연진

가수 범키

유튜버 박위

가수 루나

가스펠보컬밴드 CRUX

PLASTIC KID

사진설명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이 4월 21일과 28일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서빙고와 양재, 부천, 대전, 평택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수원과 인천, 강동은 교회 내 지정 장소로, 남양주는 목회지원실로 기증품을 가져오면 된다. 기증품이 많은 경우에는 굿월스토어에 연락하면 방문수거도 한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은 성도들이 모아 준 기증품을 굿월스토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한다. 기증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이다. 문의: 1533-0091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소감문 모집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 참가 소감문을 받는다. 4월 7일(일)까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찍은 사진과 간단한 소감문(A4 한 장 이내)을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제출한 소감문은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와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차세대 그림 대회 및 전시회도 한다. 4월 1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 관련 A4용지 한 장 크기의 그림을 그려서 이메일로 보내면 5월 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전시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은 개인과 가정, 일터에서 발생시킨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하고, 일상에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는 운동이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어졌다. / 홍하영 기자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오늘 본문은 ‘부활 장’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전반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반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는 사건**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현재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19-20절).

“만일 이 세상의 생명만을 바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기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란 유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을 설명합니다. 곧 첫 곡식 다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가올 추수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의 성취입니다. 보리 추수 한 단이 하나님 앞에 드러진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이 약속되고 보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미래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과거 죽음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않으셨던,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누리지 않았던 생명,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생명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부활 생명의 삶

고린도전서 15:19~24

주실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미래에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변혁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창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태어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자연적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개선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형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길에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변화,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사람’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한 새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새 사람’이다. 그는 모든 새 사람의 기원이며 중심이자 생명이다. 그는 조에(ZOE; 영원한 생명)를 전염이 아니라 좋은 전염(믿음)을 통해 전달하신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굿 인픽션’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전염’이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믿음은 전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염됨으로써 바로 그 새 사람이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현재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엡 2:4-7).

‘함께’가 세 번 반복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난 상태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함께 살리실 것’이라고 미래의 부활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표현했다면 모두 현재완료형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서 얻은 부활의 생명이며, 지옥과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정복한 생명이기에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의 앉힌 바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골 3:1-2).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고,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로 살아감으로 위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미래에 부활이 약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전염받고, 이식받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그때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미래의 변화만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다”(24~25절).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28절).

나중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승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딛고 있는 이 땅에는 사탄의 세력,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죄와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간에 사탄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소탕해 가시는지, 우주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회복시켜 가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투가 나오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 행렬이 나오는 것입니다.

디데이(D-Day)와 브이데이(Victory Day)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2차 대전 마지막에 있었던 ‘디데이(D-Day)’와 ‘브이데이(V-Day)’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독일군에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영향입니다. 1944년 6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찌른 그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이미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날을 ‘디시전 데이(Decision day)’ 또는 ‘D-Day’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은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이 함락되었을 때입니다. 독일군이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8일을 ‘브이데이(Victory Day)’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D-Day와 V-Day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D-Day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한 승리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 땅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V-Day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승리의 V-Day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D-Day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V-Day,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는 마지막 V-Day에 해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기간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기적〉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 ‘새로운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자연 위에 새로운 자연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새로운 자연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예배와 통치를 받는 새로운 자연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도 그 새로운 자연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새로운 자연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의 날(V-Day), 우리가 누릴 세 가지 모습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골 3:3-4).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보입니다. 육신의 생명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그 영광의 날, V-Day(승리의 날)에 누릴 그 승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누릴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깨어있게 됩니다. 부활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깨어있는 청지기처럼 그들이 깨어 있게 됩니다.

둘째, 그들은 근신하는 이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만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승리의 날에 완전히 진멸될 사탄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한 명이라도 더 포함되도록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신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무장된 이들로 살아갑니다. 깨어 있든 지, 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미래의 변화만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신문 창간 30주년 축하

‘온누리신문’은 온누리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온누리신문〉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30년간 〈온누리신문〉 발행을 위해 수고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누리신문〉은 매주 발행되는 교회 신문으로서의 놀라운 열매를 지난 30년간 맺어왔습니다. 교회 신문을 매주 발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 발행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풍성한 소식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역동적인 사역들이 있었기에 〈온누리신문〉의 내용은 충실하게 채워져 왔습니다. 글과 사진으로서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온누리신문〉의 헌신이 있었기에 온누리교회의 사역들이 성도들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성도들의 신앙과 사역을 서로 나누는 중요한 채널이 되어주었기에 온누리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왔습니다.

〈온누리신문〉은 곧 온누리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과거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신문들은 온갖 사건, 사고 그리고 광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몰라도 되는 뉴스들, 불필요한 광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온누리신문〉은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생각할수록 믿음을 세워주는 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최근 〈온누리신문〉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알찬 기획 기사들로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소중한 내용들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 커피숍에서 〈온누리신문〉을 꼼꼼히 밑줄 치며 읽고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요.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정리하며 읽고, 한주간 중요한 행사들에 대한 소식을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역들을 중보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온누리신문〉에 대한 비전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달되어 전도의 통로가 되는 신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누리신문〉을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더 강력한 호소력과 전달력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신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수고해주실 〈온누리신문〉의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위임목사 이재훈

온누리신문의 주요기록



- 1984년 10월 한남동 한국기독교선교선교원에서 12가정 제자훈련 시작
- 1985년 6월 23일 구역 성경공부 모임 시작
- 1986년 2월 23일 교회건축기공예배
11월 30일 건축헌금 작정
- 1987년 7월 19일 서빙고 본당 입당예배
- 1988년 7월 17일 영어예배 시작(창립)
- 1989년 1월 29일 해외선교헌금작정
- 1990년 2월 선교교육관 부지 매입 위한 헌금 작정
- 1991년 3월 3일 군포선교센터 하나로 개원
- 1992년 5월 12일~6월 30일 신혼부부학교 개설
- 1993년 4월 3일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17기) 시작
- 1994년 4월 3일 온누리신문 창간
12월 18일 세계선교교육센터 기공예배
- 1995년 3월 11일 제1회 만남의잔치 시작(새신자)
5월 9일 변동코이노니아 개원예배

- 1996년 표어: 거룩과 순결
1월 23~28일 한동대학교신문기자 수련회 (장소: 온누리신문, 영성훈련 및 신문제작 기법 연수)
- 1997년 표어: 순종과 헌신
5월 7일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 위한 군포센터 개원
- 1998년 표어: 회개와 부흥
4월 19일 온누리 도서관 개관
- 1999년 표어: 변화와 성숙
1월 12일 제1기 어머니학교 개강
1월 23일 온누리신문 토요일 발간, 누리사랑부 창립5주년 기념예배
- 2000년 표어: 새 하늘과 새 땅
1월 〈온누리행진 14년〉 발간(교회 태동~1999년)
10월 8일 창립 15주년 기념주일 온누리TV 개국(온누리인 터넷방송국) 기념 감사예배

- 2001년 표어: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소서
9월 5일 직장인을 위한 수요저녁예배 시작
- 2002년 표어: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교회
4월 13일 제1기 온누리 선교학교 개강
- 2003년 표어: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
3월 30일 'Acts29' 비전 발표
- 2004년 표어: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
6월 26일 온누리TV 24시간 방송 시작
- 2005년 표어: 온 세상을 위한 교회
3월 29일 CGNTV 개국, 감사예배(서빙고 본당)
- 2006년 표어: 온 세상을 향한 교회
6월 18일 등록교인 5만명 돌파
- 2007년 표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4월 8일 1000번째 선교사 파송



- 2008년 표어: 세상에 평화를 심는 교회
2월 26일 선교사 안식년 숙소 'TIM House' (상도동) 완공 및 입주감사예배
- 2009년 표어: 화해와 일치
11월 1일 온누리신문 미주판 창간
- 2010년 표어: 말씀과 성령
5월 28일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기공예배, 'Acts29비전빌리지'로 명칭 변경
- 2011년 표어: 주여, 나를 보내소서
8월 2일 하용조 목사 소천(향년 65세)
9월 24일 공동의회 투표, 이재훈 담임목사 선출
- 2012년 표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
5월 25일(~7월 6일) 온누리신문, 1기 온누리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아카데미(OMCA) 개설

- 2013년 표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8월 2일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예배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기공식, 기념도서관 개관식(Acts29 비전빌리지)
- 2014년 표어: 은혜와 진리
1월 사회선교부 신설
- 2015년 표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3월 10일 안산M센터 신축 기공예배
11월 22일 사회선교부 '엔젤트리' 시작, 사연 접수
- 2016년 표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3월 29일 제1회 장로아카데미 개강
- 2017년 표어: 돌아키면 살아나라라
2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정식 출범
- 2018년 표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5월 25일 인천 온누리교회 착공 감사예배 및 착공식

- 2019년 표어: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11월 13일 제주 Acts29훈련센터 완공감사예배
- 2020년 표어: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2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지침 발표
8월 19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 영상예배로 전환
- 2021년 표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1월 18일 예배당 예배 재개(예배 예약 시스템)
4월 2일 영종도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
- 2022년 표어: 세상의 소금과 빛
10월 5일 두란노해외선교회(TIM) 30주년 기념예배
- 2023년 표어: 길, 진리, 생명
5월 7일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및 헌당예배
10월 28일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예술

동행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이 교차하는 방식

우리는 교회에서 활동과 세상에서 삶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 일, 직업, 학문영역에서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도 작업과 신앙을 연결하는데 많이 고민했다. 마치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혹은 커밍아웃하듯이 나름 비장한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 결단의 이유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례로 교육받은 나의 세계관 교정이 필요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종교적 성향의 작업에 대한 동시대 예술 현장의 거북한 시선 때문이기도 하다. 인종, 성별, 민족성, 성 지향성과 같은 개인적 정체성의 표현 등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종교는 마지막 금기로 남아있다. 소수민족들의 토속신앙이나 무속마저 통용되는 동시대 미술에서 기독교와 같은 거대종교가 설 자리가 없다. 기독교적 표현이 유일하게 허락된 자리는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비판하는 경우뿐이다. 이외에도 커밍아웃을 고민했던 더 큰 이유는 세상의 언어,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통용되는 어법으로 복음과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것처럼 세상의 언어, 동시대 미술 현장의 언어로 기독교 세계관을 전할 수는 없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총을 받은 우리는 “일반은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각 영역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보하라”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강령처럼, 교회 안에 계도화 되지 않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낼 방법이 없을까?

예술과 신앙에 대한 이러한 고민은 비단 필자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예술작품을 대하는 많은 성도가 유사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 문학의 권위자이자 성서의 문학적 접근을 시도한 리랜드 라이켄(Leland Ryken)은 예술과 기독교의 관계를 “경건한 스타일이나 경건하지 않은 스타일 같은 것은 없다”고 한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의 주장을 인용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예술은 성경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제안하는 예술과 기독교 신앙이 교차하는 세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을 명백히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예술은 작품의 주제가 전적으

로 기독교적인 예술, 즉 그리스도의 인격, 기독교 교리, 또는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다룬다. 또한 기독교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예술이 신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할 때 그것은 기독교 예술로 식별된다. 둘째, 암시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하는 예술이 있다. 성경 또는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 상징을 암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작품의 주제나 의미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암시적 요소가 기독교 세계관적 예술을 정의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현대 예술가들이 기독교 이미지나 기독교 어휘를 사용해서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표현하기에 이는 분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드러내는 예술이다.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포괄적이고 내재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가치와 시각을 전달한다. 암시적 관점의 예술이 어느 정도 기독교적 요소를 표현하는 것에 비해, 이 경우는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 텍스트나 표현이 없다는 게 그 특징이다.

더 나아가 라이켄은 예술가의 의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세계관의 렌즈로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

고 있어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말한다. 몇 년 전 어떤 사극을 시청하다가 드라마의 전개 과정과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에스더와 많이 닮아서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드라마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작가나 프로듀서가 기독교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드라마를 시청하는 내내 <에스더>를 읽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라이켄의 관점에서 이러한 예술을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반은총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예술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더 자유롭게, 더 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기독교와 예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방식이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세상에 침투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의 외연을 넓히는 전략 아닐까?



김지혜 권사
(온누리세계관학교,
서빙고공동체)

특별기고

기독교와 선거

지난 2016년 선거 때 선거권이 있는 미국인 중에서 약 61%만 참여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투표율도 거의 같았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투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선거 자체에 참여하는가?’ 여부에는 신앙이 영향을 그리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신앙은 선거 자체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라는 전 우주의 중심이 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시민권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 등 삶의 모든 측면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시민권과 관련해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상반된 오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룰이 ‘정치적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치적 결과에 달려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환상이란 ‘우리 편이 집권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저쪽 편이 집권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를 말한다. 분명한 것은 정치적 환상은 정치권과 신학계 양쪽 모두를 괴롭힌다는 점이다. 특정 후보를 메시아적 용어로 묘사하는 것은 정치적 환상에 시달리는 것이다. 특정 후보를 적그리스도로 묘사하는 것 역시 정치적 환상에 시달리는 것이다. 어떤 정치 후보도 ‘기독교를 구원’할 수 없다. 어떤 후보도 기독교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릴 수 없다.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어떤 종류의 정치 참여도 무의미하게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악할 수 있다’는 정치적 착각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선거가 웃음거리였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악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에게 투표는 시민의 의무이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폴슨 센터의 창립자 척 폴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우리는 자유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투표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하셨다면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또는 퇴근하자마자 훌륭한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투표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했는지 알아보세요.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하러 간다고 말하면서 가까이 친구들을 데려가세요.

지금은 투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중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28년 동안 투표권을 잃었습니다. 선거권이 회복된 이후 2000년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대통령 선거는 플로리다에서 단 5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제

표도 그중 한 표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투표는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기독교인은 정치에서 휴가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서 말도 안 되니 잠자코 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공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하도록 동기부여 할 힘이 없다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분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세요. 정치에 참여는 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만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 세속주의자가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한다면 간단히 바로잡아 주세요.

“살레지만 공동묘지에 있는 십자가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정부 상대로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서 ‘하나님 아래’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의사, 간호사, 약사에게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는 의료 시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가 학교에서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나요?”

도대체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구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

은 단순히 건국 이래 우리 국민이 누려온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는 건국 신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건국 선열들은 진정한 권리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네,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옆으로 물러서지 마세요. 나가서 여러분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하세요. 양심이 이끄는 대로 투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양심에게 말하게 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의무를 이행하세요. 가서 투표하세요.”

척 폴슨이 여러분을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기독교인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다한 다음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문: breakpoint
논평(20201103)



존 스톤스트리트
(척 폴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엄마 아빠, 성(性)이 궁금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성교육

이진아 전도사
(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성교육이 중요하다. 유아기 때는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서부터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 시기에 스마트폰이 생겨서 그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중요한 시기에 성경적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세상보다 먼저 가정에서 성교육해야 한다. 세상이 먼저 자녀들에게 성에 관한 지식을 주기 전에 부모가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미디어에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될 수 있으면 늦게 줄 것을 권한다. 미션 프론티어(Mission Frontiers)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이들이 포르노에 처음 노출되는 시기가 11세였다. 14세가 되면 94%의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포르노를 본 적 있을 정도로 노출된다. 한국도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생들의 음란물 사이트 접속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7~13세는 측두엽의 활발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때 포르노에 노출되면 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포르노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성은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노 영상을 보며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떨어지고, 건강한 가정관이 파괴될 수 있다. 건강한 성경적 성교육은 나쁜 콘텐츠를 밀어내는 분별력을 키워준다. 성교육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하기 전에 되도록 일찍, 가정에서 먼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

차세대 독후감

둘째, 하나님이 남녀를 구별하신 것을 교육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세포마다 성 염색체를 새겨두셨다. 세포 하나당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23번째에 있는 염색체가 성염색체다. 남자라면 ‘XY코드’, 여자라면 ‘XX코드’가 눈, 코, 입, 손, 발 등 온몸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이 신체부터 정서까지 남녀를 구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인위적인 성전환 수술 등으로는 성별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녀의 눈높이로 설명해주는 게 필요하다. 남녀의 차이점을 자녀와 함께 책과 교육 영상 등의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하면 아주 유익한 성경적 성교육을 할 수 있다.

셋째, 자기 몸을 보호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의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19.9%, 청소년 78.7%로 나타났다. 가족 혹은 친척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18.95%, 가족 외 아는 사람 44.4%, 전혀 모르는 사람 28.4%였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몸을 보호하도록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아빠와 엄마 혹은 의사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에게 바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성교육을 할 때는 인형을 활용하면 좋다. 곰인형을 통해 각 신체 부위를 인지시키면 좋다. 손으로 곰인형의 특정 부위를 만질 때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도록 연습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신체 부위를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성교육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대처 방안을 몰라 피해당하기 쉽다.

넷째, 아빠와의 데이트를 통해 멋진 남성상을 만들어 주면 좋다. 딸들은 대부분 아빠를 기준으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누구를 만나는 아빠보다 좋은 남자, 아빠보다 안 좋은 남자로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아

빠와 딸이 정기적인 데이트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 성교육 방법이다. 딸과 데이트 할 때 아빠가 문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음식도 챙겨주는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면, 딸은 훗날 자신을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정중하게 대해주는 멋진 남자를 만나는 꿈을 꾸게 된다. 딸에게 아빠는 높은 자존감과 남자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다.

다섯째, 자녀가 성에 대해 질문할 때 성교육 기회로 삼아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시기다. 자신의 몸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성적 호기심은 여러 호기심 중 하나일 뿐이므로 부모들이 당황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아이의 질문에 나이와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면 된다.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자녀와 둘이 앉아 무겁게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일상에서 자녀가 질문할 때 성교육 기회로 삼는 게 좋다.

우리 가정의 경우, 강아지가 생리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엄마! 강아지는 얼마 만에 생리해요?”라고 물었다. 그 질문을 기회로 삼았다. 자연스럽게 생리와 임신에 관한 성교육을 했다. 성교육할 때는 자녀가 질문을 많이 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 자녀가 “아기는 어떻게 나와요?”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딸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생각을 했을까? 많이 컸네”라며 칭찬해 주는 것이다. 자녀의 질문에 부모가 칭찬으로 화답하면 더 자연스럽게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성교육, 어렵지 않다. 자연스러운 대화로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하면 된다. 자녀들이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훗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우리 아이를 위한 성교육 3편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성교육’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그림 명난희
67.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2)

우리 가족을 위한 ‘작은 책장’



〈심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이진아 저 | 두란노 |
12,000원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성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과 세상이 말하는 성 사이에서 괴리감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여기, 10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책이 있다. 이진

아 전도사(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가 쓴 〈심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이다. 이 책에서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성 가치관과 성경적 성교육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교회와 소그룹,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를 실었다. 영어권 성도들을 위해 영어 교재도 실었다. 한국어가 서툰 성도들이나 선교지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다.

〈심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을 읽으면 하나님이 남녀에게 각자 다른 성을 주신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올바른 성경적 성 가치관과 가정관을 배울 수 있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우리 아이를 위한 성교육’과 함께 활용하면 더 깊이 있는 성교육을 할 수 있다.

좁은 길, 하지만 바른 길!

교회 독후감 대회에 참가하려고 〈천로역정〉을 읽었다. 책을 읽을수록 주인공 크리스천이 고난을 받는 게 슬프고 안타까웠다. 나도 순례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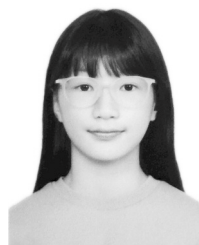
〈천로역정〉은 존 번연이 1678년 출판했고, 성도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기독교 고전이다. ‘천로역정’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저자가 비유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설명한다. 저자가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주신 것과 같은 의미일 것 같다. 저자는 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재미있는 이야

기로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던 전도자의 말을 잊고, 세속현자의 말을 들어 결길로 빠지려고 했다. 나도 학원을 가다 보면 넓은 길보다 지름길을 갈 때가 있다. 부모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좁은 골목길보다 넓은 길로 가라고 하셨지만, 빠르고 쉽게 가는 길로 갔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순례를 떠났다면 이미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결길로 빠졌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기 위해 힘쓰라고 하셨다. 크리스천은 좁은 길을 ‘바른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좁지만 바른 길로 걸어갔다. 나도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경을 기준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겠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긴다.

김도현 학생
(서빙고 소년2부)

이보다 큰 유익과 특별한 은혜가 없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의 유익 그리고 은혜

온누리교회가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 중심에 ‘공동체 성경읽기’가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 ‘순 공동체 성경읽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되는데, 그 유익과 은혜가 벌써 풍성하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그 고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듣고, 읽는 성도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참석만 해도 성경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큰 유익과 특별한 은혜가 어디 있나”고 고백하는 성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큼 성경일독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일독을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의 크고 특별한 은혜로 손꼽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서는 <우리말 성경>으로 매일 신약과 구약을 함께 듣고 읽는다. 5분 찬양, 15분 공동체 성경읽기, 5분 메시지, 5분 합심기도 순으로 예배가 이어진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를 경험한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누리는 은혜가 정말 특별하다”고 고백했다.

김국중 집사(강촌공동체)는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비로소 말씀 읽는 즐거움을 알았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좋든지 매일 새벽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다.

“그동안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혼

자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간쯤 가서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혼자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더니 성경 읽기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일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읽으니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최효은 성도(일산과주공동체)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더불어 함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그 은혜를 기대하며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말씀을 듣고, 보면서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김희선 성도(서빙고공동체)는 성경 읽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다. 분주한 삶에서 실천하기가 그토록 어려웠던 성경 읽기가 이제는 즐겁고, 받은 은혜도 깊고 넓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가 기도로 이어지는 신앙의 성장도 경험하고 있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 덕분에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김선경 집사(일본어예배공동체)는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말씀을 더 듣고, 더 읽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졌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기인 집사(강촌공동체)는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를 한마디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場)’이라고 소개했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나면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해진다고 간증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서 구약과 신약, <시편>을 함께 읽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김소망 선교사(TIM)는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새벽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새벽이라는 고요한 시간에 함께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새벽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어서 잠잠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와보십시오.”

사역칼럼



강신의 장로
(공동체 성경읽기
사역팀)

<느헤미야> 8장 2~3절에서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한다. 실제 당시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스스로 해설자로 다가가기 전에 경청자로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구성을 크게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예배에서는 말씀을 적게는 1절, 많게는 1장 정도 읽고, 메시지(설교)를 길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성경을 봉독하는 부분인데, 이 시간이 너무 짧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신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제안으로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의 특징은 본문 길이가 길고, 메시지(설교)가 짧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을 늘리고,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말씀 또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

분을 설명하는 시간을 줄였다. 그리고 메시지(설교)가 끝나면 바로 합심기도로 넘어간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데, <시편>은 두 번, 신약은 한 번 읽고도 <로마서>까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지속하기가 어렵다. 또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가 약해질 수 있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 함께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의 가장 큰 유익은 성경을 단순히 통독한다기보다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줄여서 말씀이 말씀하게 하고, 이를 듣는 훈련이 바로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는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시간’이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공동체 성경읽기,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초고령사회와 교회의 새로운 역할

대표적인 사회문제와 변화, 교회가 제시할 대안



김영석 교수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강촌공동체)

흔히 한 사회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면, 그 사회를 ‘초고령사회’(超高齡社會, super-aged society)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으로 발전한 다른 나라들도 역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미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 154년, 이탈리아 79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예정이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의 가파른 증가는 사회에 다양한 문제와 함께 변화를 일으킬 거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는 대표적 사회문제인 노인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의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교회가 제시할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노인의 높은 자살률과 그 원인 그리고 교회에 주는 시사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약 1만 7천 명이 자살했다. 이는 5년 동안(2016년~2020년) 한 해 평균 65세 이상 노인 약 3천 400명, 하루 평균 약 9.3명의 노인이 자살했다는 심각한 수치다.

특히 노인의 자살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했다. 2020년 한 해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가 60대 30.1명, 70대 38.8명, 80대 62.6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 65세 이상 10만 명당 남자 67.4명, 여자 22.1명이 자살했다.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3배 정도 많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46.6명이 자살했는데, 이를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10만 명당 평균 17.2명의 자살자 수와 비교하면 약 2.7배 높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백서〉에서 밝힌 2016~2020년 경찰청이 조사한 변사자의 자살통계에 따르면, 육체적 질병 문제(39.6%), 정신적·정신과적 문제(36.9%), 경제



**“시니어 성도를 돌보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시니어 성도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나눠 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생활 문제(11.0%), 가정 문제(6.6%)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 노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인만 육체적 질병,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를 경험하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최초의 사회학자로 여겨지는 프랑스의 뒤르켐(E. Durkheim, 1858년~1917년)은 자살의 원인을 사회적 현상으로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구분한 자살 유형 중 하나인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은 전쟁 패배, 국가적 경제 위기와 같이 사회질서의 급격하고 심각한 붕괴가 원인이 되어서 사회구성원들이 자살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체제 이후 국민의 자살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 ‘아노미적 자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자살률 역시 ‘아노미적 자살’의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빠르게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노인의 육체적 질병, 외로움, 경제적 가난 등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살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닌지 교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다. 이태호와 허순임이 〈보건사회연구〉라는 학술지에 2021년 발표한 ‘사회자본이 노인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지역의 많은 종교단체 종사자 수가 노인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종교단체에서 노인이 다른 구성원들과 긍정적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인간관계를 갖게 되므로 종교단체에서 노인이 신뢰감과 유대감을 갖기보다 고립을 경험하기에 노인의 자살률을 높였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남성 노인의 경우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수와 시민단체 종사자 수가 그들의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 하나만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지만, 이 연구가 교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단지 노인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노인에게 부정적 경험이 될 수 있다. 교회가 시니어 성도의 아픔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교회가 제시할 대안, 시니어들의 자원과 역량 나눔 기회 제공

미래 사회가 겪을 커다란 변화 중 하나는 ‘베이비붐(baby-boom) 세대’의 고령화 현상이다. 베이비붐 세대란 한 국가에서 특정 기간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나라마다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 연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 2차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1964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로 지칭한다. 일본의 경우 1947년에서 1949년에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団塊の世代), 즉 베이비붐 세대라고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사회적으로 안정된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수는 약 69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 매우 큰 규모의 세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어왔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이제 노인의 연령대로 접어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만형격인 1955년생은 2020년부터 만 65세가 되었고, 막내 격인 1963년생은 4년 뒤인 2028년 만 65세가 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20대와 30대에 국가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다. 그만큼 이전 노년 세대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학력을 가졌다. 2021년 ‘서울연구원’의 세대별 보유 자산(금융 및 실물자산 합계) 조사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순자산(4억 966만원)은 어린 세대보다 많았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23년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35.7%), 초등학교 졸업(23.7%), 중학교 졸업(23.7%), 대학교 졸업(13.8%) 순이었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 노인에 해당하는 서울시민(1955년~1957년)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55.8%), 대학교 졸업 이상(20.6%), 중학교 졸업(17.5%) 순이었다.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더 젊은 연령대가 노인 연령에 진입하면 노인들의 학력이 더 높아질 거로 예상된다. 이전 노인 세대가 주로 사회로부터 부양을 받았다면,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과 다양한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목원대학교 신학과 김정희 교수가 〈신학사상〉에 2020년 발표한 ‘인구 절벽 시대, 교회의 베이비붐에 대한 재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교회가 베이비붐 세대 성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인구 절벽 시대 교회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베이비붐 세대 성도를 ‘수혜자’에서 ‘시혜자’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 성도가 그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교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교회에서 발견하면서 노년기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행 20:35).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 성도를 돌보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니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나눠 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교회는 사회의 유일한 소망이자 대안!

사회선교 세 가지 전략 표어 'Loving U'



정운오 장로
(동작공동체, 사회선교
본부 사회적임통합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수행함이 교회의 사명일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알려면 그분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을 살펴보면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막 1:15). 구체적으로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눅 4:18-19). 그렇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도 이같이 해야 함이 자명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적인 차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회심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라면 익히 알고 있는 소중한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적인 차원에까지 미친다. 인간이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억눌리게 되는 이유는 원죄로 인한 탐욕이나 이기심처럼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적 세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악(예: 인신매매, 학교폭력, 경제력 독점, 공산주의, 마약 거래, 불법도박 등)도 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인 세계, 곧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도 포함된다.

사회의 구원은 마치 한 인격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구원의 대상으로서 사회란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도, 체제, 관습, 규범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또한 이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적, 공적 조직(기업, 학교, 정부 기관 등)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로 작동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공적인 영역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온전한 복음' 또는 '총체적 복음'이라 부른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비전

2014년 초 온누리교회에 사회선교부가 창설된 배경은 복음을 공적 세계에까지 확장해서 '온전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사회선교부가 이재훈 위임목사의 제2기 사역 이후 창설되었지만, 그 비전은故 하용조 목사가 소천하기 전 이미 선포되었다.故 하용조 목사는 생

전에 'Acts29 비전'을 선포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와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교했다. 때마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대안이다. 교회는 사회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되며,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실대 김회권 교수는 '한국 복음주의 교회는 왜 사회선교에 무관심할까?'라는 자신의 글에서 사회선교를 '개인적으로 중생의 구원을 맞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규범과 가치에 따라 기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최대한 반영하는 사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민들의 뱃속까지 가득 찬 사회(사 11:1-9)를 건설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故 하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전략 표어인 'Loving U'는 2015년 초 이재훈 위임목사가 제시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렘 2:5-11)라는 그해 교회 표어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세 가지 'U' (unfamiliar, uncomfortable, unsafe)를 'Loving U'라 이름하였다.

먼저 'Uncomfortable'은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생활양식과 습관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한다는 뜻이다. 경제적 풍요 속 무분별한 과소비,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과 플라스틱 남용이 육신의 편의를 쫓는 현대 생활양식의 결과물로서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이 첫 번째 전략은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창조세계의 회복에 필요한 전략이다. '탄소 중립'은 이제 세상 사람들만의 캠페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오히려 앞장서

연약한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듯이,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는 교회,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교회"라고 말했다. 이 말씀을 따라 사회선교의 두 번째 전략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되었다. 서울역 작은방(쪽방) 사람들, 싱글 맘, 이주 근로자와 탈북민, 독거노인을 섬기는 사역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Unsafe'는 성도들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억압과 가난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지대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그 현장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다. 강제노동, 성착취, 학교폭력, 마약거래 등과 같은 구조적 악에 대항하는 일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온누리교회 30주년 부흥비전집회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는 '위험한 교회'라는 설교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위험한 일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동체는 교회"라고 설교했다.

팀 켈러는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한 신학생을 소개하고 있다. 볼티모어에 사는 신학생은 그 도시에서 가장 빈곤하며 폭력, 마약, 매춘으로 얼룩진 빈민촌을 사역지로 정하고, 그곳으로 이사해 오랜 세월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살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의 빈민촌 사역은 구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었다(미 6:8). 빈민촌의 가난과 그로 인한 마약과 매춘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그들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흉악한 결박'이고, 이를 풀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창기 빈민촌 사역은 총알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 상황이었는데, 이는 마약상들이 그를 경찰 요원으로 생각했고, 경찰은 그를 마약상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월버포스는 불의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다. 그는 일평생 정치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故 하용조 목사의 말대로 교회가 우리 사회의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대안이 되려면 복음을 사적 영역의 주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교회는 공적 광장에서 기독교 복음을 외쳐야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 참여적 선교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 사회의 유일한 소망과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까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온누리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유일한 소망과 대안이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한다."

용조 목사가 선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비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Uncomfortable(불편 감수)
'Unfamiliar(낯선 이들과 관계 맺기)
'Unsafe(위험 감수)

이처럼 사회선교사역은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문제의 성격 또는 섬김의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많은 사역팀이 사회선교부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많은 개별 사역팀의 다양성은 공통된 기본 전략을 공유할 필요를 낳았으며, 이 전략은 'Loving U'라는 표어로 요약된다. 여기서 U는 'Uncomfortable(불편함을 감수하기)', 'Unfamiliar(낯선 이들과 관계 맺기)', 그리고 'Unsafe(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기)'라는 영어단어의 공통된 앞글자를 가리킨다.

야 할 신앙적 사명이다. 그 이유는 창조세계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선교본부는 2015년 두 번의 주일에 걸쳐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했다. 교회에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을 만들었다. 이 캠페인을 연례행사처럼 실행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매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돌봄을 위한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Unfamiliar'는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은 낮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경제적, 심리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다. 성도에게 낯선 사람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나 국외에서 이주해 나그네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온누리교회 30주년 부흥비전집회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는 '낮아진 교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아라!

‘전도하러 기차 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김양신 성도가 매주 토요일 새벽 기차를 타는 이유

〈온누리신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찾고 있다. 이번에는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김양신 성도(강남C공동체)다.

김양신 성도는 복음 전하고, 전도자를 세우는 소망을 품고 매주 토요일 새벽 서울에서 광주광역시로 가는 기차(KTX)를 탄다. 매주 이어지는 여정이 몹시 피곤하고 지칠법한데 그녀의 발걸음이 늘 가볍다. 복음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매주 토요일 새벽 기차를 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매주 토요일 새벽 5시 8분, 김양신 성도가 기차에 몸을 싣는다. 목적지는 광주광역시다. 3년째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 시간에 기차를 타고 있다. 물론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잘까?’, ‘이번 주만 쉬까?’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유혹이 김양신 성도의 전도 열정을 결코 가로막지 못한다. 복음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몸을 일으키게 된다.

그 뜨거운 전도 열정이 만든 ‘열두 명의 전도자들’

김양신 성도는 전라남도에서 전도폭발훈련생들을 교육하는 훈련자다. 매주 광주에 가서 전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폭발훈련 하기도 하고, 훈련생들과 함께 전라남도 곳곳을 누비며 전도를 한다. 각 지역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 공원 등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지역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

김양신 성도가 서울에서 첫 기차를 타고 광주광역시에 도착하면 오전 7시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친언니 집으로 향한다. 언니와 함께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전도폭발훈련 훈련을 한 타임 진행한다. 훈련이 끝나자마자 전라남도 한평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한평에서 기다리는 또 다른 훈련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김양신 성도의 토요일은 쉴 틈이 없다.

“금요일까지 일하다가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광주에 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도 광주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전도할 힘을 새로 채워주십니다. 그 덕분에 저는 광주에만 오



김양신 성도가 어느 마을회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면 힘이 솟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거뜬히 해낼 힘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 전도폭발훈련에는 방학도 없다. 전도자를 한 명이라도 더 세워야 한다는 김양신 성도의 열정 덕분에 3년째 한 주도 빠짐없이 훈련하고 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전도폭발훈련 수업을 듣는 훈련생이 한 명이어도 달려간다. 그 열정 덕분에 처음에는 전남 전도폭발훈련생이 두 명뿐이었는데, 어느새 열두 명이 됐다. 이 열두 명의 전도자들이 전남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을 전하러 땅끝까지 나아갔던 열두 사도들처럼 말이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마을회관’

하루는 전남 전도폭발 훈련생들, 강남C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전도 아웃리치를 갔다. 천도교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린 어느 마을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던 참 곳은 날씨였다. 걱정을 가득 안고 갔는데, 날씨마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마을 어르신들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일을 못 나가시고 마을회관에 모여 계셨습니다. 그날 세 마을을 돌았는데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을회관에 꼭 찬 어르신들을 보면서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도의 황금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은 쉽지 않았다. 평생을 천도교와 불교를 따르던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급기야 김양신 성도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라 하늘과 땅, 자연에 친숙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르신, 농사하면서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요?’, ‘낮과 밤, 계절,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등의 질문을 던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르신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셨다. 김양신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테니까 마음에 인정이 되면 “아멘”이라고 대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느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어르신이 눈물을 왈칵 쏟으며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다.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다. 그날 이후 남해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두고두고 생각났다. 그리움이 너무 깊어서 남해로 2차 전도 아웃리치를 갔다. 이번에는 마을회관 네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다음날은 의료사역팀과 함께 한 마을에서 수액을 놔드렸다. 차레를 기다리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다. 1박 2일 동안 주민 8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79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마을회관 전도는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영광군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피는 어느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이었다. 그 목사님의 사랑에 전남 전도폭발훈련팀이 힘을 보탰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수의 사랑을 전했다. 그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영광백수교회에 어르신 24명이 찾아오셨다. 전남 전도폭발팀에게 마을회관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것이 전도의 참맛!”

김양신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난다. 어느 날은 광주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는 97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남편의 구박 속에서 7남매를 홀로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어르신이었다. 그 어르신은 평생 절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의지하며 지내셨다.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부처를 배신하는 일”이라며 한사코 반대하셨다. 그 어르신을 만나러 김양신 성도가 갔다.

“쫓겨날 각오를 하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병상에 누워계신 어르신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그동안 힘드셨지요?’ 라고 물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영접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말이 인정되면 두 눈을 크게 떠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르신이 기도 한 문장마다 두 눈을 보름달처럼 크게 뜨시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한번은 한평에 사는 한 남자를 만나러 갔다. 그는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집에 온갖 불상이 가득했다. 그는 세상의 수많은 신을 섬겼지만, 예수만은 거부했다. 어릴 적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교회와 척을 지고 살았다고 했다. 그에게 김양신 성도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형제님이 처음에는 자신이 섬기는 다른 신들처럼 ‘한번 알아나 보자’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형제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부정맥이 있다는 그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는데, 그 형제님이 ‘선생님이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귀신을 쫓는 은사나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신을 섬기는 그 형제님의 상황에 맞춰 기적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예수를 깊이 만났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전도자가 됐다.

이처럼 수많은 전도 성공 사례가 있으면 으쓱할 법한데, 김양신 성도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

“전도는 절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도는 절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그 이후 일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참맛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이사야〉에 나오는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수여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54장에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희망의 약속을 주고 계신다. 5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구조가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프로포즈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집과 불순종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우리의 불성실한 모습과 같다.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즉, 영적으로 실패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바로 ‘목마른 자들’이고, ‘돈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은유적 표

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무가치한 자를 의미한다(마 5:6). 이들은 지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처럼 말이다(3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초대는 행위

운 자들이다. 한마디로 영적인 부도 또는 파산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패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삶

을 보여주고 있다.

‘포도주와 젖’, ‘자나무와 화석류(13절)’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임하는 살롬의 기쁨과 풍요와 수확과 승리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초대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며, 확실히 초대에 순종하면 그들이 받게 될 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8~13절).

이 내용에 비추보면 우리가 앞서 논의한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은 결코 개인의 간구와 기도가 이뤄지는 데 있지 않다. 죄에 빠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사랑의 권면과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는 회복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이 말씀은 죄에 빠진 자가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권면과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는 회복의 의미다.”

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는 감탄사와 역설적 표현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에게 오라고 말한다면, 돈 없는 자에게 무엇을 사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하다. 이것은 역설적 표현이다.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자들이고, 목마른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지쳐 쓰러져 스스로 무엇을 감당하기가 어려

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으니 마음 문을 열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값없다’는 말을 공짜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은 ‘값싼’(cheap)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priceless) 은혜가 주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할 하나님 나라임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지혜로 다스리는 통치자

4월 8~14일

〈열왕기상〉 2:36~6:13



의 공의를 세우는 솔로몬의 지혜를 묵상하자.

▶시므이는 반역한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신랄하게 저주했던 인물이다(삼하 16:5-8).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하며, 그가 이를 어길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경고한다. 3년 후 시므이는 도망간 두 종을 잡아오기 위해 가드에 갔다 돌아온다. 솔로몬은 브나야에게 명령해 악한 시므이를 처단함으로 다윗의 유언을 성취한다.

묵상포인트 2: 솔로몬은 최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일천 마리 번제물)를 바치고, 그의 헌신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복까지

묵상포인트 1: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솔로몬은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인 제안으로 시므이의 발을 묶어둔다. 하나님 손에 악인의 운명을 맡기고, 결국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고 나라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묵상하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소원을 물으시자, 솔로몬은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시며, 다윗처럼 그분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을 명하신다. 한 아기에 대한 두 여인의 송사 해결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지혜를 보여준다. 솔로몬은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신하들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는 등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한다. 또한 블레셋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조공을 받고, 사방의 민족들과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니 그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이가 찾아온다.

묵상포인트 3: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은 다윗이 품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이를 이룬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로왕의 적극적 원조를 받아 내고, 백성을 동원해 큰 공사를 진행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만일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의미를 묵상하자.

▶솔로몬은 부친 다윗을 사랑한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요청한다. 히람은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

며 재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기 궁정을 위한 음식을 요청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솔로몬이 히람과 약조를 맺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성전을 짓고 불박이 창문과 3층으로 된 다락, 골방, 주랑(당실)을 만든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분의 법도를 따르고 계명을 다 지키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웁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구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보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자. ▶솔로몬이 심리해 판결하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며, 부국강병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약 1:5). ▶지혜는 있는데 넓은 마음이 없다면, 혹은 넓은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불완전한 수밖에 없다.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자. ▶성전의 외관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 순종을 다 시금 강조하셨다. 큰 성곽과 사역에 마음을 온통 쏟다가 일상의 작은 순종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K자매와 P자매를 위해서!

서빙고 한터공동체 K자매와 P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십시오. K자매는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온 탈북민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한국에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K자매의 마음에 평안과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K자매가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십시오.

P자매는 중국에서 자녀를 낳고,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정착 기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겨서 최근 자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언어의 문제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P자매의 자녀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언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국에서 잘 정착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P자매가 자녀와 한국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하도록,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P자매의 자녀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하성희 목사(한터공동체)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천호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2024 행복이음 축제'.

행복에, 복음을 담다!

강동, '2024 행복이음 축제'

강동온누리교회가 지난 3월 31일 천호로데오거리 광장에서 '행복에, 복음을 담다'를 주제로 '2024 행복이음 축제'를 개최했다.

2024 행복이음 축제에서는 강동 사랑부 카리스마합창단과 강동연합 찬양사역팀, 강동챔버오케스트라가 복음 메시지가 담긴 공연을 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무대도 꾸몄다. 지오댄스 아카데미 K-POP 댄스, SKY 색소폰 동호회 색소폰 연주를 했다. 천호로데오거리 소상공

인과 함께하는 공감소비운동도 진행했다.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마련했다. 탄소중립 캠페인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증정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다육식물 화분을 만들어 선물했다. 정크아트 스트 문경화 작가의 '플라스틱의 역습' 작품도 전시했다.

박현숙 권사(강동온누리교회)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복음을 전

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했고, 김민석 원장(지오댄스 아카데미)은 "교회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좋은 취지의 행사를 열어줘서 감사하고, 함께 참여해서 기쁘고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준호 목사(강동온누리교회)는 "행복이음 축제를 계기로 강동온누리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시상식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선정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3월 29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있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신의 배달부'의 김다빈·김선진팀, 최우수상 '빛진구들'의 황주윤, 우수상 '로드 스테이션'의 이주은·장병준팀, '쇼 유어 라이프'의 민인애·유선주팀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신의 배달부'는 은퇴 선교사들의

귀국 이후 삶과 사역을 소개하고, 배달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와 후배 선교사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들고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을 담은 콘텐츠다.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수상작에게는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내부 시사를 거쳐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채널에 편성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4월 화요성령집회 '다른 삶의 방식'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4월 화요성령집회 '다른 삶의 방식'이 한창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9일 정한호 목사 '혼란의 시대,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왕하 22:3-13), 16일

최성민 목사 '분열의 시대, 하나님 이 능력입니다' (엡 4:1-6), 23일 이서진 목사 '상실의 시대, 바라봄이 능력입니다' (요 5:1-9), 30일 최대홍 목사 '거짓의 시대,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마 7:15-27)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일일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일일 결혼예비학교가 5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6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26만 원.

일일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임항재 목사, 김의수 센터장, 김숙경 소장이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20기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20기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열린다.

20기 이주민선교학교에서는 '결혼 이주민 여성 이야기',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 '성장기 다문화 차세대', '근로자 유학생, 이주민 역파송 사회 통합의 관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5780-8410



양재 이웃사랑팀, 쌀 400포대 기부 ...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이 부활절을 맞아 지난 3월 20kg 쌀 400포대를 양재동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탈북민, 농어촌교회, 선교단체 등에 전달했다. 쪽복음과 부활절 카드도 함께 전달했다.

안산M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교사 모집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은퇴 교사도 가능

안산M센터가 안산시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대안학교를 운영하게 됐다. 이주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기본 교과 과정을 함께 가르친다. 이에 따라 안산M센터 위탁형 대

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를 모집한다.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그 대상이다. 은퇴 교사도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주 15시간)이고, 근무지는 안산M센터다. 문의: 010-9418-1910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4월 13일 Acts29 비전빌리지 시안홀

성령수련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3일(토) Acts29 비전빌리지 시안홀에서 '성령! 소망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된다. 황신연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전

화(02-3215-3533)로 하면 된다. 준비물은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편안한 복장이다. 4월 13일 오전에 서빙고, 양재온누리교회 앞에서 셔틀버스가 운행 될 예정이다.



효고 기·도·제·목

- 4월 7일(주일) · 러브소나타 '효고'를 통해 일본 땅에 회복의 영이 역사하게 하소서
- 4월 8일(월) · 말씀 선포하실 이재훈 위임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소서
- 4월 9일(화) · 러브소나타 홍보와 안내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많은 영혼이 참여하게 하소서
- 4월 10일(수) · 러브소나타 참가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4월 11일(목) · 러브소나타 스태프와 출연진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은혜롭게 준비하게 하소서
- 4월 12일(금) · 효고를 묶고 있는 우울과 분열의 영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로 회복하게 하소서
- 4월 13일(토) · 일본 차세대가 깨어나 예수를 영접하고, 무너진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5월 17~19일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5월 17일(금) 오전 11시부터 19일(일) 오후 2시까지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5월 1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20세 이상 70세 이하 성도가 대상이다. 회비는 18만 원.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민경수 목사, 정희성 목사, 임사라 선교사, 오은규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5월 17일(금) 오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등록 확인하고 10시에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다.

문의: 010-6330-7634

헬로맘 스쿨 참가자 모집

헬로맘 스쿨이 4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임신과 출산을 준

비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4월 1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5757-3427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성령수련회 참가자 간증



/ 손옥이 성도(서빙고온누리교회)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증인들!

지금까지 나는 성령님을 ‘방언과 예언을 통해 나타나시는 신비한 영’이라고 생각했다. 성령의 은사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공적인 기도모임이나 집회에서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굳이 많은 회중이 참석하는 곳에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할까? 남들의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라고 여겼다. 내 기도엔 집중이 되지 않고, 방언기도 소리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그 소리가 기술적인 외침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예언하거나 대언기도, 치유의 은사나 신비적인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볼 때면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이러한 은사가 없는 것일까?,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은 뒤쳐진 것은 아닐까?,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어서일까?’ 라고 생각하며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성령수련회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신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분의 속성, 사역, 성령의 은사와 열매, 우리를 향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인격적인 성령님을 알 수 있었다. 정말 많은 성령님의 사역이 있음에도 나는 그중 하나에 불과한 성령의 은사(영 고

침, 예언, 각종 방언, 방언 통역)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의 잘못된 지식과 인식으로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성령수련회에서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하셨다는 것을 알고 눈물이 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숨(breath)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성령님의 영(spirit)이 살아 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내가 너무 은사에 집중한 나머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었다.

더불어 가장 특별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배우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다. 은사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와 복음 증거를 잘 감당하기 위함이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번 성령수련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착각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성령님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며, 은사의 고유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불어주신 생기를, 그 호흡을 다른 이들에게 다시 불어 넣어주는 생명을 전하는 증인들이다.

성인세례 간증



/ 박선혜 성도(동작공동체)

‘혁’ 소리 나는 사랑으로 찾아오셨다!

7~8년 전 엄마와 언니가 나를 교회에 몇 차례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어떤 큰 존재에 간절히 기대하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 안 됐다.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타지에서 혼자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엄마를 돌보러 병원으로 내려갔다. 엄마는 내가 오기 전까지 매일 밤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계셨다.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서 환각을 보시고, 이상한 말들을 밤새도록 쏟아내셨다. 화를 내고, 끔찍하셨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난생처음 보는 낯선 엄마의 모습에 놀랐다. 3일째 저녁,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나의 사랑은 연약했고, 동시에 나의 마음이 찢어졌다. 엄마를 버리고 온 것 같아 숨을 쉴 수 없었다. 무서워서 다시 병원을 갈 수도 없었다.

이틀 동안 밤낮없이 울다가 목이 쉬고,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나를 원망하며 껌뻑 잠이 들었다. 새벽 5시쯤 문득 어떤 하얀 존재가 다가오더니 두 손을 펼쳐 나를 품에 가득 넣고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 품에 안기는 순간, ‘혁’ 소리만 저기 밑 단전에서부터 올라왔다. 그 존재는 나만 알던 내면의 어둠뿐 아

니라 심지어 깨닫지 못하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그런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안기니 ‘완전한 사랑’을 조금은 알게 됐다. 그날 그렇게 성령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날 아침 곧장 집을 싸서 병원으로 돌아갔다. 노란 프리지아 한 단을 사 들고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드렸다. 엄마는 노란 프리지아를 손으로 움켜쥐시고 향기를 맡으셨다. 그날 하루를 꼬박 나와 함께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소천하셨다.

그날 이후 나는 강한 이끌림에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찬양과 기도, 설교 속에서 그때 성령님이 주신 용기와 사랑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내가 근본부터 바뀌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었던 내면의 어둠 속에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다.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셨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다.

1다락방 1사역 간증



/ 김의선 권사(관악금천공동체)

작은 걸음이 많은 열매로!

지난해 여름, 군산명성교회로 특별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관악금천공동체 은혜다락방에서 도시 미자립교회를 섬기려고 다녀온 일일 아웃리치였다. 군산명성교회는 전형적인 도시 미자립교회다. 성도라고는 목사님 가정과 성도 한 가정뿐이었다. 우리 다락방이 사회선교 대상을 도시 미자립교회로 정하게 된 이유는 지속성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이유가 컸다. 교세가 열악한 현실에서도 예배의 갈망과 영적 부흥의 비전으로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기도와 초정이 그 시발점이었다.

지체 30여 명과 대형버스를 빌려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군산에 도착했다. 하루 종일 비가 왔지만, 말씀을 의지했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군산명성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뜨거운 한대 속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렸다.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드린 예배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게 역동적으로 부어졌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예배 후에도 계속 비가 왔지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를 했다. 나는 순 집사님과 함께 교회

인근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면서 직원이 계산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전도용품물을 드렸다. 노방전도도 의미가 있었지만, 순 집사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다. 사랑을 주러 갔다가 내가 더 받은 황재한 기분이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깨달았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기뻐하셨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대한 간증을 나눴다.

최근 군산명성교회 목사님께 연락이 왔다. 교회가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역들을 알려주셨다. 세 가정이 교회에 등록했고,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교회로 발전했다고 한다. 우리는 작은 걸음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소외된 자, 힘든 자, 병든 자들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처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만남의 잔치 간증



/ 박인하 성도(S브릿지공동체)

크리스천으로 새 출발!

온누리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많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은 ‘진짜 새신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을 신봉하는 무신론자였다.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자 교회에서 사진 봉사를 하는 막내 할아버지의 기도와 전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새가족 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요즘 ‘만남의 잔치’에서 찬양했던 내용처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독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과학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QT를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예배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어느 주일날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인상 깊게 들었다. 각자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나온 두 친구에 관한 이야기였다. 낚시하다 사고를 당해서 두 아들 중에서 한 명만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평소 믿음

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거라며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믿음 없는 다른 사람의 아들을 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 나에게서는 놀라움이자 충격이었다. 이해가 잘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 기억에 남았다.

나는 S브릿지공동체에 소속되어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시작했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었다. S브릿지공동체 예배 중에 담당목사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실이 일종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집에 가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데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이야기가 다시 이해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공동체 생활과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새출발 했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운유희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잡지 <새벽나라> 기획 및 취재, 편집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 서울 서빙고동
접수: 4월 7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67기 온누리 내적치유학교
일시: 5월 17일~19일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회비: 18만 원(교역자 20%, 부부, 가족 20% 할인)
신청: 5월 11일까지
문의: 010-6330-7634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운유희(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운유희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운유희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관사(010-3285-1726)

CMN 토보티م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진,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채용 공고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자격: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학력: 2년제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와이무슬림 현장 및 온라인 과정
일시: 4월 27일~6월 8일 매주 토 오후 5시~8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Zoom
회비: 현장 5만 원, 온라인 2만 원
신청: 5월 4일까지
문의: 010-5557-8924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골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운유희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간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간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서초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사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톤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슬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ki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복 임동현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어 최정현 하요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석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남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신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지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준 이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결혼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이중봉, 신현미(한소망교회)의 아들 이지원(한소망교회)
이형기, 이순화(분당우리교회)의 딸 이정은(온누리교회)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우정훈, 유영희(온누리교회)의 아들 우형준(온누리교회)
홍영기, 박명우의 딸 홍지수(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가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채용 공고
분야: 운전원(정규직), 조리보조원(계약직) 채용
내용: 운전원 대령면허 소지 필수, 조리보조원 조리사 자격
증 소지자 우대
문의: 김혜지 과장(02-794-6100)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및 복지관 홈페이지 '채용안내' 글 확인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서초구립노티나무쉼터 원어민

30th Anniversary

온누리신문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울고 웃으며 함께 써 내려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온누리신문은
‘문서사역’과 ‘기록사역’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제시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온누리신문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